### 생약초 황금 먹인 한우·돼지·닭·오리…

# 강진 '축산 엘도라도' 프로젝트

## AI 파동 이겨낸 '황금닭' 성공 힘입어 확대 추진

강진군이 한우, 돼지, 닭, 오리 등 모든 축산물을 황금(黃芩)사료로 키우는 '축산 엘도라도('황금의 나라'를 뜻하는 에스파냐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미 생약초인 황금 약재를 먹고 자란 황금 한우와 황금 닭은 광우병과 AI(조류인플루엔자) 파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매량이 급상승하며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강진군이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2006년 개발한 '황금닭'은 3년째를 맞아 황금알을 낳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황금닭은 강진군 전체 531개 양계농가(100만 마리)중 작천면 용정마을에서 백원재씨 등 11개 농가에서 연간 5만 5천여마리를 사육해 지난해에만 1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큰닭 기준 마리당 최하 1만5천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으며, 계란은 개당 300원에 팔려 사육 농가당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근 AI 파동속에서도 웰빙열풍과 함께 친환경 무공해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해 적기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황금닭이 항균작용과 해열, 소염에 약효가 탁월한 '황금' 한약재와 미생물제 등을 원료로 한 사료를 먹임과 동시에 기존 닭에 투여하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된 배추와 상추 등 농산부산물과 들풀을 뜯어먹고 자라 사료비 부담이 적고, 방목하기 때문에 닭도 건강해 폐사율이 2%대로 낮고 AI 및 다른 질병 감염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황금닭'을 '녹색축산'과 '생약의 고장'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살리는 전남의 대표 토종닭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또 '황금닭'의 히트에 힘입어 지난 4월 초 강진읍에 '강진들 황금한우 암소 먹거리촌'을 개장했다.

판매하는 모든 한우는 황금을 먹고 자란 '1등급 강진산 암소'다. 전국적으로 광우병 파동 때문에 한우 판매가 주춤하지만, 이곳만은 매일 6~7마리씩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주말이면 쇠고기를 구입하려는 외지인들이 몰려 조기 품절될 정도다.

강진군은 앞으로 '황금 돼지', '황금 오리' 등 모든 축산물을 황금으로 키우는 '축산 엘도라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모든 축산물을 '황금'과 연계해 사료값 폭등과 기름값 상승 등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강진지역의 축산농가들을 살려 내겠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 기자lucky@

▲황금은= 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해열과 이뇨, 소염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항균 효능이 뛰어나 '천연 항생제'로도 불린다.

# 완도 해양경찰, 인터넷 소식지 창간

### '해(海) 맑은 청빛뉴스'

완도 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가 최근 인터넷 소식지 '해(海) 맑은 청빛뉴스' 를 창간했다.〈사진〉

'해맑은 청빛뉴스' 1호에는 발간사를 비롯해 ▲경무기획과 소개 ▲칭찬릴레이 ▲노화파출소 마음나눔 행사 ▲폭풍을 헤치고 산모와 신생아를 무사히 후송한 129정의 활동상 등이 실려있다.

완도 해경은 인터넷 소식지인 해맑은 청빛뉴스를 통해 함정과 섬지역에 위치한 해경 파출소 등에서 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모아 전달하고 오지 섬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두석 서장은 발간사를 통해 "단순한 소식지가 아닌 완도 해경의 해상치안과 지역민을 위한 노력, 다양한 정보 등을 생생히 전달하는 사이버 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맑은 청빛뉴스'는 완도해경 홈페이지(wando.kcg.go.kr/)에서 청빛뉴스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장흥에 전국 최초 해양낚시공원

### 회진 해양낚시공원 8월17일 개장

오는 8월 장흥군 회진면 대리에 전국 최초의 해양낚시공원이 개장된다.

회진 해양낚시공원은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8월 17일 준공된다.

해양낚시공원에는 진입도로와 해안데크, 정자, 낚시교, 해상낚시터, 안내소, 인공어초 등이 들어선다.

현재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상 낚시터와 인공어초 투하는 완료됐고 나머지 시설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해양낚시공원은 어업면허가 있는 대리어촌계가 관리를 맡게 되며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5천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회진 앞바다는 10여년 전부터 해마다 전국 규모의 바다낚시 대회가 열리는 등 천혜의 낚시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장흥군은 바다낚시공원이 조성되면 도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낚시체험 공간을 제공해 해양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농촌들녘 장마 대비 분주**

나주 봉황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장마에 대비해 고추밭에서 지주대를 손질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 나비축제의 고장 함평

### 이번엔 '해바라기 축제'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에서 '해바라기 축제'가 열린다.

해바라기 축제는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오두마을 3만5천여㎡ 규모의 경관농업지구에서 오는 27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오두마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가마솥에 해바라기 볶기', '해바라기 꽃을 이용한 자신의 얼굴 조각하기' 등 체험행사 위주로 꾸며진다.

또 해바라기 조각 전시회, 가족사진 촬영 대회, 농악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곁들여진다.

이와 함께 마을 안에 한옥 민박과 황토펜션, 단체 세미나실 등 다양한 체류형 시설과 폐교를 활용한 '황토와 들꽃세상'의 야생화 공원 등 볼거리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상행 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친환경 청정지역 이미지에 경관문화를 접목시켜 도시민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농 간 교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여권 접수 대행해 드립니다

### 전남도,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여권접수도우미 제도' 시행

전남도가 여권발급제도 변경으로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본보 23일자 12면 보도〉을 덜기 위해 '여권접수도우미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서지역의 경우 10명 이상, 육지는 15명 이상일 때 가능하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령자들은 5명 이상만 돼도 종합민원실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여권 신청을 접수한다.

방문접수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화나 FAX로 전남도청 민원실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여권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5일 후에 가능하고 신청자 중 대표가 전남도에서 찾아가거나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이 발급되고 있는 여수와 순천, 광양, 영암지역은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원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이 도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제를 운영한다"며 "수요가 많을 경우 현지 접수반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담양 에덴유치원 '전남 119소방동요대회' 대상

담양 에덴유치원이 지난 19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 3회 전남119소방동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남지역 10개 소방서에서 유치부 10개팀과 초등부 10개팀이 출전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에덴유치원에게는 전남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 10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